

말씀을 통한 기도

시편 119:145-152

정윤돈 목사님

서론

(1)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다. 다양하게 있다. 소리내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 성경은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이것이 집중 아닌가? 집중하면 달라진다. 그런 통성기도도 필요하다. 방언은 어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초보적인 것이다. 그러나 굳이 안 할 것도 없다. 나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렇다.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말할 시간이 없지 않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중얼중얼하면서 나오게 되어 있다.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해 보라.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성경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다. 어디 가서 소리 지르겠다. 다른 데 가서 하느니, 차라리 교회 와서 실컷 울고 소리지르는 것이 낫다. 초창기 집회에서는 류목사님도 뜨겁게 통성기도를 인도하셨었다. 목상기도도 성경적이고, 통성기도도 방언기도도 다 성경적이다. 문제는, 복음도 모르는데 방언기도를 시키니까 이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괜찮다. 복음 모르고 체험적인 것을 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긴다.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육적인 체질이 더 세계 나오니까 아예 입을 다물게 하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내린 다음에 새로 하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무시로 24시 기도할 수 있다. 작정기도도 할 수 있다. 집중이 되는 방법 아닌가? 복음 안에서 하면 다 좋은 것이 된다.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기도하자는 것이다. 예배를 통한 기도가 있다.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다. 기준이 있다. 예배에는 4요소가 있지 않나? 말씀, 찬양, 기도, 헌금이다. 그 중에서 헌금이 안 들어가면 기도회다. 구역예배는 그래서 예배지만, 수요, 금요, 새벽에는 기도회가 된다. 제물이 없는 제시는 없는 법이다. 그런 의미를 알려주면 좋다.

(2)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데, 새가족에게 기도를 알려주어야 한다. 첫째는 감사다. 둘째는 회개다. 셋째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며, 마지막이 중요하다. 이것을 몰라서 끝낼 줄을 모른다. 너무 잘 한 다 했더니, 끝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 (웃음) 결국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웃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다. 적용을 하는 것이다. 복음메시지를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복음메시지를 기도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말씀

을 통한 기도다. 새신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어야 한다. 잠언 말씀을 받았지 않나? 지혜를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이 삶 속에 있기를 바란다.

(3) 기도의 제목을 보면 다 알지 않나? 우리처럼 기도하는 팀이 없다. 평생 기도제목이 있어야 한다. 나는 RUTC도 몰랐고 인생의 꿈이 없었다. 하나님과 함께 편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다. 아이 들이 어릴 때 아빠는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꿈이 없었다. (웃음) 그런데 다락방 하다가 꿈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겼다. “전 세계에 RUTC를, 5천 곳 이상에 RUTC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3천 제자 세우는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전략을 전달하는 모델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기도생활을 체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1. 우리가 목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만사를 물어야 한다.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면 목사님에게라도 물어보시기 바란다. 묻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다.

(1) 우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야 한다.

(2) 장소를 정해야 한다. 지교회를 할 때도, 그분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집중이 나온다.

(3)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단 5분이라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냥 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을 주셨다. 그것이 기도수첩이다. 목상을 하기 위한 너무 좋은 친구다. 그냥 성경을 보는 것은 어렵다. 특히 새가족은 더 그렇다. 그래서 말씀으로 안 내를 해 주는 것이다. 전도자들은 이 기도수첩을 안 하면 하루 시작이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 아닌가?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

2.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이다.

(1) 우리의 적인 사탄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고후11:14,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고 있다.

(2) 전도는 사탄의 손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3.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 언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것을 개인화해야 한다. 너무 바쁜 사람은 교회에 일찍 와서 기도하라. 마음에 작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간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예수님도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셨다. 초대교회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다. 목포에 있을 때, 우리는 월요일 낮에 전도캠프를 했다. 점심식사를 한 후 2시부터 4시까지 모여서 기본메시지를 나누고 전도하러 나갔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전업주부들은 특히 이 시간을 만들어라. 주부들도 다 바쁠 것이다. 백수도 과로사하는 법이다. (웃음) 그래서 규모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바쁜 사람이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어 있다. 나는 일을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바쁜 사람에게 시킨다. 그래야 왔다갔다 하면서 다 해 버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을 받으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기를 바란다.

(2) 어디에서 기도하느냐를 정해야 한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활용을 다 해야 한다.

(3)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① 요일5:14 그의 뜻대로다.

② 요일3:22-24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말은 이렇게 잘 하신다. (웃음) 잘 안 주시더니. (웃음) 그 차이가 믿음 일 것이다.

③ 요15:7 방법이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

④ 여기에서 비밀을 찾게 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하지만, 마18:18-20, 기도의 팀이 모여야 한다.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팀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폭발이 일어난다.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가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 자살예방, 중독재활, 전부 팀을 구성했더니 응답이 계속 오는 것이다. 박상희 장로님이 나와 팀이 되었는데 강남역에서 강남구청장이 참석할 만큼 시스템이 생긴 것이다.

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결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미션을 이루는 것이다. 전도훈련을 통해서 시간표 따라가며 하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전도제자가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다. 8미션이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팀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올바른 기도제목이 나온다. 그러니까 3오늘, 개인전도가 되는 것이다. 지속을 하려면 내가 먼저 기도수첩에 성공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차고 넘쳐야 한다. 전도문이 왜 안 열리느냐 하기 전에, 내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득차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보게 되어 있다. 밖에서 아무리 이단이다 뭐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보니까 안 흔들린다. 이렇게 절대문이 열린다. 그러면 절대 시스템이 나온다. 현장에 마약, 알콜, 게임, 도박 중독이 너무 많다. 문제가 너무 많은데, 들어갈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가 준비되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가 가는 곳마다 지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왜 300지교회인가? 300명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지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이다. 날마다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현장 교회가 되고 현장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나. 기초를 만들고 나면 누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이 절대 제자다. 내가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를 만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가장 중요한 열쇠가 강단 메시지, 기도수첩 메시지, 본부 메시지다. 이것을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설명자가 아니다. 증인이다. 응답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설교는 어려워도 증인 되는 것은 쉬운 법이다. 고통당하는 사람,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귀신 보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 가문, 교회, 현장,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란다.